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음 6월 10일) 제23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인구 중요성' 알리기 총력

도, 인구의 날 맞아 다자녀 직원 소통 간담회·퀴즈 이벤트 등 연계행사
송하진 도지사 "위라벨 정착 위해 직원 목소리 청취, 정책 반영할 것"

전북도가 제8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전북도청의 임신부 및 다자녀 직원 소통 간담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의 날 퀴즈 이벤트를 통해 인구의 중요성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2012년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전북도는 11일 도청에서 "출산을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직사회가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임신부 및 다자



송하진 도지사와 육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어 송 지사는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육아용품 등을 전달했다.

녀(네자녀 이상)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도와 도 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임신부 4명, 다자녀 직원 11명이 참석해

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도청 내 위라벨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앞서 8~11일 도청사 내 응모함에 응모권을 접수하거나 홈페이지 전북 소통대로(https://policy.jb.go.kr/) 응모를 통해 인구의 날 알리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12일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종훈 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인구의 날 연계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행복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바람소리 |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확정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
6개 분야 130여회 공연 진행
축제 개막공연 '바람, 소리'
초호화 라인업 한자리에 모여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올해 소리축제는 6개 분야 130여회 공연으로 진행되며, 몽골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말리, 알제리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뮤지션 등이 참여한다. 조직위는 관악기의 동력인 '바람(Wind)'과 종교음악 및 농악 등 전통 예술 속에 새겨진 인류의 바람(Wish)을 동시에 연상케 하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올해 축제의 주제를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로 정했다. 먼저 소리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바람, 소리'는 올해 축제에 등장하는 초호화 라인업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전통

음악을 비롯해 전 세계 관악 명인들의 명품 호수를 따라가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곧 성년이 되는 축제의 정체성을 공고히하고자 '소리축제=전통을 향한 오마주'로 정리했다. 이는 그간 축제의 기초가 전통음악과 월드뮤직 등 2가지 중심 동력을 통해 이뤄져 온 만큼 전통을 토대로 행해지는 세계 다양한 음악적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축제를 오리지널, 콜라보레이션, 컨템포러리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추진한다. 오리지널 섹션에서는 소리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과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산조의 밤', '종교음악 시리즈 1·2'로 분류했다. 특히 올해 판소리 다섯바탕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 동행의 무대로 꾸며지며,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젊은 소리꾼들의 재기 넘치는 공연으로 이뤄진다. 특별 기획 종교음악 시리즈 1·2는 삶이 기도다 되고, 기도가 연주가 된 이들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에 귀 기울

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간 삶의 여로와 그 길에서 필연적으로 절절한 기원을 안고 사는 인류의 바람(wish)을 조명한다. 콜라보레이션 섹션은 광대의 노래 '바람의 길'을 비롯해 폐막공연 '다섯 시나위', 아시아 소리프로젝트 2019, 앙상블 셀레네로 구성됐다. 이 중 폐막공연은 전북의 중견 및 신진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대중적인 락 음악과 국악,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득한 무대로 꾸며진다. 마지막으로 컨템포러리는 소리프론티어 10주년을 기념해 타니모션, 악단 광칠, 오감도, 더 톤 등 역대 수상 단체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전통과 고전 등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한 원형 그대로의 음악과 역사성을 지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세계 다양한 음악이 협업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농협은 11일 지역본부에서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농촌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주제로 '2019 동심농부(同心農富) 조합장 워크숍'을 열었다.

전북농협, '동심농부' 조합장 워크숍

농가소득 5000만 조기 달성 '한마음'

'디지털 혁명에 적극 대응 초일류 협동조합 금융 거둬' 강조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1일 지역본부에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과 농가소득 5천만 원 조기 달성을 위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농촌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주제로 '2019 동심농부(同心農富) 조합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군지부장, 조합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은영 농촌지원단장의 2018년 농가소득 결과 분석, 백운농협(조합장 신용민) 등 농가소득 우수 14개 농협에 대한 표창 전수,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의 특강과 이

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의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상호금융이 왜 강한가?'라는 특강을 통해 "상호금융은 강력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의 자기완결성을 구축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쇠락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으므로 디지털 혁명에 적극 대응해 농업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여는 초일류 협동조합 금융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블루

오션 전략과 창조경영' 특강에서 "환경·문화·관광 등 농업은 21세기 융복합시대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협동·협업·협치에 길 있다"고 말했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2018년 전북의 농가소득은 약 1000만원 증가한 4509만원으로 전국 평균 4207만원을 300만원 이상 상회했다"며 "앞으로도 동심농부(同心農富)자세로 전북 농업·농촌과 전북 농업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단결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전북농협이 활짝 열자"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 "자치분권 위해 적극 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

겠다고 밝혔다. 뉴스에 따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

지방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선언을 통해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